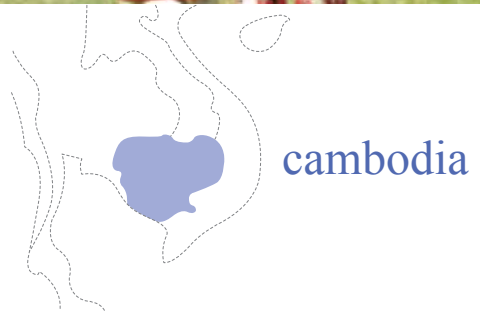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2기

사랑을 채우다







Contents



006	재단소개
008	사업소개
010	전체일정
012	선발 / 교육 / 발대식
020	봉사활동
	교육봉사
	노력봉사
	의료봉사 보조
	학예회
	홀스테이
	마을축제
036	단원소개 및 에세이
090	인솔자의 편지



아산 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단
출발,

이제 시작이다!

ក្រុមការងារ វគ្គសិក្សាប្រយោជន៍ មួយឆ្នាំ
នៃ កាកបាទ ឆ្នាំ២០១២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단 2기



: 2012. 7. 11 ~ 7. 24. 파견기관 : 캄보디아 / Kampongseu Ewha srang school

아산나눔재단은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 정주영 선생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복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아산나눔재단

2011년 아산 정주영 선생 서거 10주기를
맞아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몽준 의원이 중심이 되어
총 6,000억원의 기금으로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구현



글로벌 리더
육성

청년창업 지원

Part 1 아산 기업가 정신 포럼

아산 정주영 선생의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Part 2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유망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자금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해외 진출도 지원하여 실질적 창업 성공을 돕고자 합니다.

Part 3 정주영 엔젤투자자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기업 투자가 주 목적인 엔젤투자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리더 육성

Part 1 해외인턴 파견

글로벌 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국제기구, 해외 주요 정책연구소에 인턴을 파견하여 현장실습 및 해외문화체험을 진행하여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art 2 해외봉사단 파견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청년들이 저개발국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공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Part 3 아산프론티어 사업

아산프론티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해외 탐방주제를 선정하고 탐방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능동적 문제 해결을 통한 창의적 사고 배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Part 4 NPO 아카데미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비영리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NPO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청년을 양성하라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단

아산나눔재단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청년을 양성하기 위해 청년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해외봉사단은 도움이 필요한 세계 저개발 지역에 파견되어 청년들의 글로벌 시민의식 및 나눔 정신 함양, 세계공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수혜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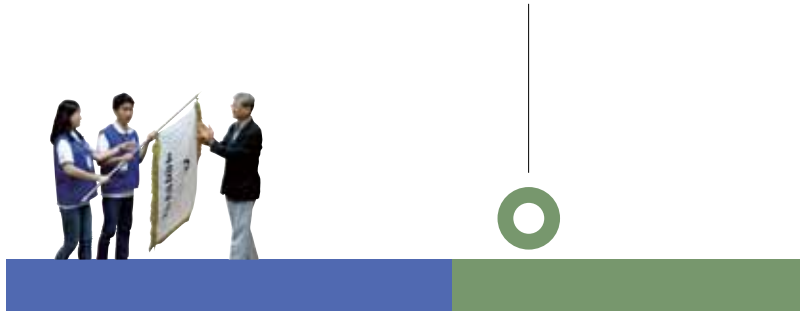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단은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스펙보다는 열정을, 성적보다는 도전과 나눔의 자세를 가진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개국(네팔, 에티오피아, 중국, 캄보디아, 케냐)에 파견되었던 100명의 1기 청년해외봉사단을 시작으로, 2012년 7월 우리 40명의, 해외봉사단 2기 단원들은 캄보디아로 파견되어 강렬한 태양아래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2주간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러 갔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슴속에 채우고 돌아온 청년해외봉사단은 좀 더 따뜻하고 넓은 세계로 한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취지

- 대한민국 청년에게 세계공민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 제공
- 저개발국 자원 문제 등 글로벌이슈에 적극 참여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30세의 남, 녀 청년



봉사 활동

- 학습지원, 교육환경개선, 문화교류 활동 등

파견 절차

- 모집공고 및 접수 → 선발전형 →
국내 합숙교육 및 발대식 → 파견활동 → 해단식



목적

- 글로벌 리더 함양
수혜지역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현지 주민과의 교류
- 문화탐방을 통한 참가자의 시민의식 함양



청년해외봉사단 2기 전체 일정

봉사단 모집 홍보

접수마감

서류심사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봉사단 귀국

봉사단 파견

합숙교육 및
발대식



파견 일정



일자	차수	주요내용
07. 11	1일차	캄보디아 프놈펜 도착
07. 12	2일차	교육봉사 _ 티셔츠 만들기, 꼬마전구 만들기, 가면 만들기, 음계 배우기, 꼬리잡기 릴레이 노력봉사 _ 학교 페인트 칠하기
07. 13	3일차	교육봉사 _ 부채그림 그리기, 손가락 석고인형 만들기, 위생교육, 전지 그림 맞추기 노력봉사 _ 학교 페인트 칠하기, 벌목(학교 길내기)
07. 14	4일차	교육봉사 _ 큰공 굴리기, 소고 배우기, 연 만들기, 책갈피/팔찌 만들기 노력봉사 _ 학교 페인트 칠하기, 벌목(학교 길내기)
07. 15	5일차	문화탐방 _ 톨슬랭 박물관/앙코르와트 노력봉사 _ 학예회 준비
07. 16	6일차	문화교류활동(학예회) 학예회 _ 사전준비 및 현장서포트, 문화공연 및 뒷정리 노력봉사 _ 학교 페인트칠하기, 벽화그리기
07. 17	7일차	노력봉사 _ 학교 페인트칠하기, 벽화그리기 마을축제 준비
07. 18	8일차	마을축제 _ 공연(사물놀이, K-pop, 포크댄스, 차력마술), 부스(전통놀이, 페이스페인팅, 미니게임, 바자회) 음식준비(비빔밥, 화채, 떡) 홈스테이
07. 19	9일차	의료봉사보조 노력봉사 _ 학교 페인트칠하기, 벽화그리기, 배수로 만들기 및 연결
07. 20	10일차	의료봉사보조 노력봉사 _ 학교 페인트칠하기, 벽화그리기, 배수로 만들기 및 연결, 족구장 건설
07. 21	11일차	의료봉사보조 노력봉사 _ 학교 페인트칠하기, 벽화그리기, 배수로 만들기 및 연결
07. 22	12일차	노력봉사 및 시앰립 이동
07. 23	13일차	문화탐방 _ 앙코르와트 출국
07. 24	14일차	한국도착



당신은 왜 봉사를 하고자 합니까?

‘아산나눔재단 해외봉사단 서류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밤새 만든 명찰을 들고 두근거림으로 면접대기실의 문을 열었던 그 마음. 그렇게 아산나눔재단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었고, 정주영 창업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문구,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故 정주영 회장님의 뜻처럼 각자 자신이 걸어온 길을 풀어내기 위해 모인 6월 17일 면접일.

“한국의 k-pop을 전수하고 오겠습니다!” 하며 원더걸스의 춤을 추던 지원자, “현지 언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며 전통의상을 입고 노래를 하던 개성 넘치는 지원자들에게선 20대의 패기와 열정이 느껴졌고, 장장을 입고 자기가 준비한 멘트를 긴장하며 쳐다보던 지원자에게서는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만큼은 모두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만큼 개성 넘치던 **여든 여덟 명의 지원자들**은 자신의 면접조와 만나 설레는 마음으로 구호를 짜기도 했고 각자 준비해온 지원서를 살펴보기도 하며 자신의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의 면접현장, 준비한 것의 반만이라도 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말이 나오지 않고, 머릿속은 백지가 되는 걸까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기에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후회 하지 않는 청춘 40명이 선발될 것이며, **40개의 길이 새롭게 나아가며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게** 될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뜨거운 도전과 열정이 있기에 청춘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아산나눔재단 해외봉사단 2기의 일원이 되고 싶은 열정들이 빛나던 하루였습니다.



봉사의 시작은 자발성 이다

6월 25일 사전교육 1일차

최종합격의 기쁨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로 한껏 들뜬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 2기 단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연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전교육 1일차, 부드러운 카리스마 박지훈 팀장님, 따뜻한 도시여자 강해진 선생님, 묵묵하게 지켜주시는 김덕산 선생님, 그리고 깨알 같은 웃음이 곁들어진 강의를 통해 우리들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해외봉사에 대한 용기와 해외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꾸밈없는 열정만으로 마냥 들떠 있던 우리 청년해외봉사단 2기 단원들은 활동 시 준수해야 할 각종 주의사항을 들어가며 봉사에 대한 각오를 굳혀나갔습니다. ‘봉사의 시작은 자발성이다’라는 주옥 같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봉사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6월 26일 사전교육 2일차

아직은 어색한 우리 39명은 아침에 일어나 다 같이 산책하면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 후에는 캄보디아 봉사활동 일정과 우리 단원들이 해야 할 내용들을 직접 기획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봉사, 문화공연, 노력봉사, 의료보조봉사분야로 나누어 팀을 정하면서 39명의 단원들이 각기 어느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단 2기로 선발된 39개의 다른 길은 한 곳으로 모여 캄보디아로 가는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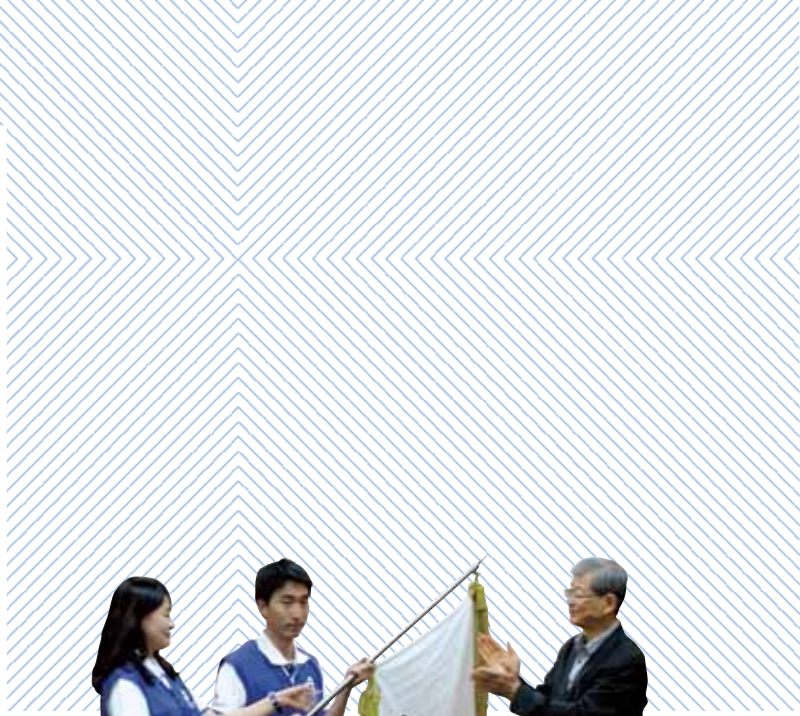




6월 27일 발대식

우리 단원들은 푸른색 단복을 똑같이 입고 나서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였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정진홍 이사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발대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39개의 별들이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단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자신감과 열정으로만 가득했던 우리 단원들은 사전 교육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서로 나누며 열정을 하나로 모았고, **최고** 보다는 **최선을 다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2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였기에 더욱 가치 있고 기억에 남는 3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점검 및 출국

6월 27일 마지막 최종 점검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해 보는 공연. 서툴렀던 지난 날과는 달리 우리는 점점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손과 발을 맞춰갈 때의 즐거움이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다음 동작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7월 11일 출국

이제는 캄보디아로 떠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꼼꼼히 준비했던 우리의 결과물들을 보여줘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많이 설레고 즐거워보이는 얼굴들. 우리가 바로 아산나눔재단 2기 해외봉사단입니다.





Volunteer Program



- 022 교육봉사
- 024 노력봉사
- 026 의료봉사 보조
- 028 학예회
- 030 홀스데이
- 032 마을축제
- 034 문화탐방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워온 시간

교육봉사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직도 캄보디아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음악, 미술1, 미술2, 체육, 위생, 영어, 과학의 8개 팀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행복해할 캄보디아 아이들을 생각하며 2주간의 기간 동안 하나하나 온힘을 다해 준비를 마치고 캄보디아 이화스랑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현지 사정에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것을 모두 줄 수는 없어서 아쉬웠지만, 준비해 간 수업내용에 즐거워하던 현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아이들이 좋아했던 미술팀, 화창한 하늘 아래 웃음 가득 뛰놀았던 체육팀, 캄보디아어로 말해 쉽게 이해됐던 위생팀, 유익한 내용이 가득했던 영어팀, 소고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음악팀, 아이들의 눈이 친구만큼이나 반짝였던 과학팀,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중력이 있었던 컴퓨터팀,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현지 아이들과 저희 단원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01



02



03

- 01 승리는 우리의 것! 화이팅!
 02 자 이제 너희가 해 보렴!
 03, 04 준비한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아이들
 05 배트맨~!
 06 이렇게 하는 거야~
 07 우리 숨씨 어때요?



04



05



06



07

따가운 햇볕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情

노력봉사

돌이켜 생각해보면 캄보디아에서의 7월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정만큼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과 한 시간 되면 어김없이 쏟아져 내리는 시원하고 굵은 빗줄기는 노력봉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무더위와 생소한 환경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모든 단원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노력봉사는 예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기온과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는 야속하기만 하였습니다. 사포질과 페인트질을 하고나면 어김없이 스콜이 쏟아졌고, 그때마다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만큼 저희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불평불만 없이 39명의 단원이 한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것은 모두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2주 동안 흘린 땀방울은 배수로, 족구장, 벽화 등 뿌듯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아름다운 눈망울을 가진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우리가 그곳에 남겨놓은 족구장에서 운동을 하며 건강해지고, 예쁘게 꾸며놓은 학교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를 떠나왔지만 뜨거운 7월, 함께했던 우리의 손길과 진실한 마음은 영원히 캄보디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01



02



03



04



05



06



07



08

- 01 정성을 다해 조금씩... 조금씩...
- 02 자랑스러운 작업물(?)의 결과.
- 03 예술가로서의 집념.
- 04 혼신의 힘을 다해 작업에 임하다.
- 05 열차영차!! 작업물품 등장입니다.
- 06 캄보디아의 멋쟁이 일꾼들.
- 07 이녀석 어서 나오너라! 승부다.
- 08 우리의 작품입니다.
- 09 잠깐의 쉬는 시간, 꿀맛같은 휴식.



10

아픔을 나누며 얻은 아름다운 소통

의료봉사보조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3일동안 우리는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파견된 의료진 및 봉사자들과 함께한 의료봉사보조활동을 하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치료조차 받기 힘든 분들, 만성질환으로 고생중이지만 약을 쉽게 얻을 수 없는 분들, 수술을 받아야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던 분들... 매일 약 700~800명의 환자들로 가득 찼던 이화사랑학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서툰 크메르어지만 반갑게 인사하는것이 전부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손을 잡아 드리고, 비타민을 챙겨 드리는 일 뿐이었지만 웃으면서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시는 현지분들에게 우리는 더욱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풍족하게 누리지 못함에 대해 불평불만이 아닌, 작은 것에 더욱 행복함을 느끼는 이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의 모습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과 의료봉사보조활동을 통해 나누어드렸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1



02



03



05

- 01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02 의료검진 설명을 하는 단원.
 03 비타민도 모두 챙겨드릴게요
 04 재! 호~ 이제 아프면 안돼!
 05 어디가 아프세요?
 06 멋쟁이 가이드.
 07 현지 통역 선생님들과 한컷
 08 너 이름이 뭐니~?



04



06



07



08

문화를 교류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학예회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우리가 준비해 간 공연을 보면서 서로가 가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과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10일간의 짧은 연습 기간이었지만, 티셔츠가 흠뻑 젖을 만큼 땀을 흘리며, 파스 냄새가 진동할 만큼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공연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쁜 미녀들과 쩌틀한 신사들이 커플이 되어 춤을 춘 노래팀, 인간문화재(?)가 리더가 되어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물놀이팀, 공항에서 대기할 때 까지 연신 '판타스틱 베이비'를 외치며 열정적으로 연습한 K-pop팀, 한국의 아름다운 부채춤 선보여준 포크 댄스팀, 자신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멋지고 인상적인 공연을 보여준 차력&마술팀 등 각자 준비한 공연은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지 사정상, 준비된 공연들을 다 보여 주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전달하였고 그것을 현지의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노력했던 시간은 전혀 아까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01



02



03



04



01 같이 즐겨요~ 쿵쿵짝~
02 후~ 풍선을 불자.
03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단다.
04 준비완료!
05 우리는 다정한 자매랍니다~
06 저! 형을 따라서 하면 된단다.
07 준비한 인무입니다^^



05



06



07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가까웠던 시간

홀스테이 후기

미주리 아주머니와 꼬마아가씨 품리를 만난 날은 우리의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가깝고, 땀방울과 함께 사라질 그 시간이 아까웠던 여덟 번째 밤이었습니다. 가기 전엔 그렇게 불안하더니, 생각지도 못한 고마운 환대와 자그마한 TV앞에 웅기종기 붙어 앉은 많은 식구들, 사람 사는 냄새 폭폭 내뿜는 나무집을 보니 왜 그리도 호들갑이었나 싶었습니다.

외워온 몇 마디 말과 온갖 몸짓으로 이루어진 짧은 대화에 진을 빼면서도 그저 신기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마치고 또 그만큼 빠르게 시작하는 이들의 일과. 그 덕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떠밀리다시피 잠에 들었는데, 3시가 되니 온 동네 수탉이 나와 울고 가족들은 하나들 일어나 하루를 열었습니다.

평소 기상시간보다 일찍 일어났는데도 집에는 품리만 남아있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늦잠(?) 덕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우리가 종종 하곤 하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TV에서 흘러나오는 잡음 섞인 목소리에 울고 웃으며, 동쪽에서 해가 뜨면 나갔다가 해지면 돌아와 몸을 푸는 거기든 여기든 사람 사는 거 별 다른 건 없었습니다.





01



02



03



04



05

- 01 취침준비 끝!
 02 아침이 밝아왔네요.
 03, 04 가족들과 함께
 05 어때요 자매들 같지 않아요?
 06 홈스테이하기전, 기대반, 걱정반
 07 숙소 준비를 해 주는 아이들.



06



07

어렵지 않은 나눔 마을축제

마을축제



‘축제’라는 말에 우리는 이미 들떠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밤이 되면 랜턴 불에 의지하며 공연연습을 하였고, 각자 맡은 부스의 사전작업을 하며 현지인들과의 설레는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우리가 다가갈수록 움츠러드는 마을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축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과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몸짓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나갔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우리의 공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땀 흘린 노력을 알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도, 목마름을 넘어서는 갈증도 어느새 모두 잊혀졌습니다. 다양한 놀이를 체험하는 부스들과 직접 준비한 한 끼의 식사, 그리고 바자회 물품을 통해 ‘나눔’이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려드는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나눔 환한 웃음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알아 갔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한 번의 손길에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던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01



02



03

- 01 아이들과 함께.
- 02 마을축제를 마치고 기념촬영.
- 03 한국의 무채춤을 일린다.
- 04 흥겨운 한마당이 시작됩니다~!
- 05 골라 가세요~ 무엇이든 있습니다.
- 06 언니가 예쁘게 해줄게^^
- 07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 08 잊지 못할 기억, 장소...



04



05



07



06



08

짙은 안개속에서 한줄기의 햇빛을 보았습니다

캄보디아 뿔슬랭 박물관

캄보디아 뿔슬랭 박물관. 원래 고등학교였던 이곳은 1970년대 후반 크메르 루즈들에 의해 이유 없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살인현장으로 변했다. 교양과 도덕을 가르치던 학교가 끔찍한 학살의 현장으로 변했던 곳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있다는 게, 5시간 여를 날아서 햇볕이 따가운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생소했다.

론놀정권의 부패와 무능으로 수많은 반 정부세력이 생기고 그 중 주도적인 무장 투쟁 단체가 공산주의자 폴 포트가 주도하는 크메르 루즈였다. 이들은 1975년 4월 12일에 프놈펜에 입성하여 급진적으로 혁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프놈펜에 입성했지만, 도시를 불태우고,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행동했다.

소위 지식층들을 고문하고, 이것도 모자라 안경을 썼으니 똑똑해 보인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작위로 잡아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았다. 견학하면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몸이 오싹했고 특히나 각종 고문도구들, 고문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사진들, 그때의 혈흔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고문실을 지날 때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돌아보기 힘든 지경이었다. 박물관 견학을 끝내고 한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인간의 잔인함,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상처를 받은 이 나라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앙코르와트

신들이 사는 세계를 이 땅에 재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앙코르와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있는 유적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하고 떠나라고 말하고 싶다. 무작정 앙코르유적지를 찾았다가는 끝이 없는 ‘돌무더기’의 지루함만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앙코르와트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간다면 먼저 그 웅대함에 놀라고, 내부의 고색창연한 건축물의 신비로움에 또 한 번 놀라게 되고, 그리고 인류의 위대함에 매료될 것이다.

동서남북 4개 대문과 바깥 세계와 연결되는 ‘승리의 문’등 모두 5개 성문으로 둘러싸여진, 앙코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 앙코르툼, 앙코르의 미소를 담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 마지막 불교사원 바이온, 그리고 인간이 만든 최고의 신의 사원 앙코르와트를 하루라는 짧은 시간동안 봐야했던 우리는 강렬한 태양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욱 지치긴 했지만, 거대하고 웅장한 어떤 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고, 살갗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앙코르와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01



02



03

- 01 캄보디아 왕궁의 황금탑 앞에서.
- 02 뚝스람박물관
- 03 과거를 찾아 여기까지 오다.
- 04 바이운사원 앞에서
- 05 신들의 그곳, 앙코르와~트
- 06 각자의 개성이 물씬~



05



04



06



Essay





함께했던
며칠간 나는 사랑...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눔의 실천

강홍구

비비크림 바르는 남자

패밀리레스토랑 훈남 사장포스
홍구.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도 염사가 나올 수 없는
조각의 얼굴로 항상 조원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매너까지 겸비한
완벽한 남자.
한국에서 국민훈남 "이승기"가
있었다면 캄보디아에서는
아자봉 미남 "강홍구"가 있다!

“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의 사는 모습들을 알 수 있다. 매체를 통해 본 캄보디아는 ‘덥다’, ‘못 산다’, ‘부족하다’, ‘킬링필드’ 등 부정적인 단어가 전부였다. 걸만 보고 속을 알 수 없듯, 상처투성이 멍든 사과처럼 보였던 캄보디아는 달콤했으며, 투명한 만큼 순수한 곳이었다.

기억에 남는 다양한 활동 중 특히 홈스테이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함 캄보디아를 경험할 수 있던 기회였다. 완, 림, 레스말, 린나, 스텔리 나와 같이 지낸 캄보디아 가족들이다. 부끄럼 많고 친절했다. 부끄럼 속에 순수함이 드러나 더 정답게 느껴지는 가족이었다. 간단한 크메르어와 보디랭귀지로의 짧은 대화에서 마치 시골에 눌러 온 편안함 느낌까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었다.

‘나는 캄보디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왔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했다. 영어교육, 페인트칠, 벌목작업 등 당장 이들에게 주고 온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허나 나 혼자로는 부족하지만 아산나눔재단 청년봉사단이라는 단체에서 속해 활동하며, 이 단체를 바라본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심어주고 더 넓은 시야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싶다.

‘기쁨과 도전은 미루지 말라’라는 말처럼 무작정 지원했던 나의 첫 해외봉사.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갔지만 정작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활동이었다. 짧은 나의 2012 소중한 여름을 함께한 39명+2명의 아자봉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구본우

미스트 뿌리는 남자

지나가는 개미조차,
흐르는 빗물조차 그에겐 사진도구.
망고스틴을 다듬고,
허수구 뚫는 그는 아자봉의 매너손.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시간표 같은
철저한 남자.
도전과 열정이 있고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100m 이준기.
깎고 깎이면서도
자신의 일을 해내는 아자봉의
연필 같은 존재.



CAMBODIA

“Cambodia에서 Challenge할 수 있는 Chance를 얻었고, Change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

다. **Always**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도움 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불개미 때의 위협에도 서로를 살피주며 앞으로의 전진 하였습니다.

Maybe 우리 모두에겐 캄보디아에서의 2주는 잊지 못할 Memory일 것입니다.

Background가 다른 40명의 단원이 서로를 믿어가며 더 좋은 세상을 꿈꾸었던 2주는 제게 더 Benefit되었습니다.

Ourselves를 위해서가 아닌 Other를 위해던 아자봉 2기의 경험은, 제 삶의 Oasis로 남을 것입니다.

Dark 속에서의 2주. K-pop 팀의 열정적인 Dancing, 페인트 칠과 홈스테이,

Ice 한 조각의 행복, Internet과 떨어진 아날로그의 2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All of 아자봉, All of Cambodia 파이팅!

2주라는 기간을 편안하게 쉬면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통해 보낸 2주라는 시간은 정말 유익했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노력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인생의 황혼이 찾아왔을 때, 먼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 상상하며 뿌듯해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열심히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



김보민

가녀린 천상 메딕너

진심 어린 관심으로 언제나
밝은 미소로 아픈 곳을
보살펴주었던 날개 없는 천사
메딕너. 단원들 사이에서
0순위로 손꼽히는 남자들의
로망 매력녀.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사슴 같은 눈망울과 여린
체형이었지만 사물놀이패의
떠오르는 ○ 셋별이었던 그녀.



캄보디아에 심고 온 한 그루의 나무

“ 꿈같은 2주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캄보디아’는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드넓은 자연, 풍요로운 과일과 무엇보다도 웃음을 잃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출국 전에는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은 캄보디아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로 하루하루 씻겨 내려가 마지막 날엔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우리들에게 까맣게 탄 손을 모아 먼저 건네는 인사, 홈스테이 때 기꺼이 자기네 가장 큰 침대를 내어주시며 자신들은 바닥에서 주무시는 가족 분들, 마을축제 때 사물놀이와 함께 뛰던 마을사람들, 한국에 가고 싶다면 그 큰 눈을 깜빡이던 어린 소녀 등 모두 잊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아자봉’에서 찾은 또 다른 보석은 함께한 단원들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며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38명 단원들의 모습은 진정한 ‘아자봉’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론 힘들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자봉’이 함께여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38개의 인연의 끈들이 모여 커다란 나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나무는 캄보디아에 있는 어느 시골 초등학교 어린이아이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2주간의 활동이 아주 적었을지라도 최선과 마음을 다했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저의 마음속에는 건강한 토양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토양에는 풍성한 나무, 꽃, 풀들이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

●● 지난 2주간의 시간은 꿈과 같이 흘러갔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옆에서 웃음을 던지는 형들과 동생들, 이 모든 것들이 지난날의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 더 느껴진다. 설렘과 기대감을 가진 첫 해외봉사활동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내가 생각하던 것이 아니어서 실망감도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갈수록 뭉치 모를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은 매 힘든 순간을 건디게 해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느낌은 “서로간의 믿음을 통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큼 서로간의 의견충돌도 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해외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르고 붓으로 희망을 그리는 순간은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있었기에 이뤄진 것이다. 모두가 서로간의 이해를 통해서 $1+1=2$ 라는 결과가 아닌 2이상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것처럼 그 믿음의 씨앗은 큰 나무가 되어 캄보디아의 뜨거운 태양과 불편한 생활도 건디게 해준 것이다. 14일이란 시간은 **나를 좀 더 모든 면에서 도약하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다.**

지난 이 시간까지만 해도 모두 웅기중기 모여 하루 일과를 끝내며 떠들썩했던 순간, 땀을 빼질 빼질 흘리며 페인트칠을 하던 순간, 추억이란 보물을 남겨 주었다.

“자신의 꿈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아름답다”고 말씀을 해주신 형들도 나이가 어려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동생들이 준 자극이 나를 한 층 성장하게끔 해주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나에게 돌아온 보람과 그 단원들과 함께 나눈 정은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되었다. ●●



삽으로 행복을 나르고 붓으로 희망을 그리다

김상훈

신이 내린 쿠키멍

친 오빠 같은 편안함.
캄보디아에서 소똥을 밟았다는
이유로 동상이라고 불리는 남자.
매일 장난치고 놀려도 너그럽이
받아주는 모습 good! 묵묵히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줬던
착한 상훈. 웃긴 모습 뒤에
진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반전 캐릭터.



김성웅

김물류씨의 물사랑

설정사진의 달인으로
사진만 보면 배수로 작업,
페인트칠, 교육봉사, 족구장,
벌목제거 모두 혼자서 다한 듯.
튼튼한 물류팀장으로서
단원들에게 가슴 속까지 시원한
물을 제공한 진짜 멋쟁이.
실내에서 일 안하고 태양을
쫓아다니는 남자.
아자불의 트러블메이커.
장화빈처럼 이제
시약을 받으라!

“아녀하세요”



“아녀하세요” 캄보디아 이화스랑에

서의 첫날 오전 컴퓨터 교육에서, 한 소녀가 수줍게 내게 건넨 첫 인사였다. 제대로 듣지 못했던 나는 “what?” 이란 물음을 몇 번이고 반복했고, 그 소년은 내게 계속 “아녀하세요.”를 몇 차례를 해서야 내게 인사를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 만난 낯선 외국인에게 낯선 한국말로 인사를 하려고 했던 그 아이의 모습은 아마도 나의 봉사활동의 이유를 대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캄보디아에서의 봉사활동에서 다른 봉사단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조와 문화공연조에 참여하였고, 물류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나와 늘 함께 따라 다녔던 ‘물’공급과 공동 물품관리 등 물류팀장으로서의 경험 역시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또는 내가 하고자 했던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과 물음에 대해 처음 내게 어렵게 인사를 건넨 한 소녀와의 첫 만남은 내게 있어 봉사의 가치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던 경험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아산나눔재단 2기 청년해외봉사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 역시 바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 꿈이었던 아산 선생님의 뜻에 크게 공감하였다는 점에서, 참여라는 바탕 속에서 함께 어울림을 통한 또 한 번의 경험이 앞으로 나눔에 대한 의미를 잊지 않고 내 주위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아녀하세요.”를 어렵게 건넸던 그 소녀의 미소를 담아 전파하도록 노력하겠다.



따뜻한 감정의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아산나눔재단의 해외봉사단 2기, 생애 첫 해외봉사였기 때문에 출국 전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설렘과 기대 또한 한편으론 긴장감을 가득 안고 출발하였다. 이화스랑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다. 내가 과연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자고 샤워실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 계속 들었다. 걱정도 잠시 반찬투정하며 걸리냈을 모든 음식과 물 하나하나에 감사해하고 있는 단원들과 나를 발견했다. 그런 나를 보며 사소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매 순간 투정만 부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이화스랑에서 아이들과 첫 시간 첫 음악수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보다 너무 큰 고마움을 느꼈다. 아이들은 우리가 준비한 수업에 안일하게 듣지 않고 수업에 차근차근 열심히 임해 주었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고마웠다. **소고수업 땀 나의 동작하나에 집중하고 따라 하며 미소를 잃지 않고 즐거워해주었던 아이들의 모습만 생각하면 이것이 나눔을 통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의 건물을 짓기 위해 길을 내주는 벌목작업,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고 깔끔한 학교에서의 생활을 위한 페인트칠, 미끈했던 학교 벽에 벽화 그리기,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봉사의 도움을 자청하며 나섰던 봉사들이 떠오른다. 의료봉사 보조 활동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서로의 언어를 전달해주고 눈빛과 보디랭귀지로써 전달해주며 **단순한 말 전달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간절함과 봉사 팀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가장 뜻 깊었다.**

처음 캄보디아에 왔을 때, 내가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떻게 그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지만 하루하루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편안히 다가가갈 수 있으며 욕심 없는 그들에게 배우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홈스테이하며 헤어지던 그 순간, 며칠 동안 같이 의료봉사하고 웃고 즐기며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와 헤어지던 순간 흐르던 눈물은 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만큼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을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내 생활과 공부에 치여 그들을 매 순간 생각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다. 캄보디아에서 지내는 동안 내내 난 **그들의 기분에 따라 마치 감정을 공유하는 것처럼 내 기분도 같이 움직였던 것 같다.** 그만큼 매 순간 단순한 봉사가 아닌 그들에게 한발자국 진심으로 다가가갈 때마다 그들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은 아니었을까?

김수빈

이자봉 댄싱머신

눈웃음이 매력적인 그녀.
음악이 나오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우리의
마시마로, 걸로로는 분위기
메이커지만 알고 보면 속 깊은
진지소녀! 매일 새벽, 우리의
체조를 담당하기 위해
몽유충을 춘다는 후문이...
베트남에서도 그녀의 매력은
계속된다.
“자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사색과 사유의 확장

“2주간의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정진홍 이사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현지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해외봉사를 통해서 나에 대한 사색과 사유의 확장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4일간 이화스랑에서 교육봉사, 노력봉사, 의료봉사, 문화공연 그리고 마을축제를 통해 깨닫게 된 가르침은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 그리고 오해하기보다 이해하는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평소애 놓치고 있는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것, 의미 없는 것이 존재하기보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식이 존재하는 것,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귀천이 없고 인식과 인격에는 귀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미룬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고 미래의 나도 없을지 모른다는 사색도 해봅니다. 계획하며 사는 삶 또는 행동하며 생각하는 삶에서 지금부터는 나는 계획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따지지도 탓하지도 않았기에 무모하지만 도전했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무모함과 실천함을 즉 도전의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깊이 반성해봅니다. 깊은 사색과 사유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단 2기 39명의 친구들과 김덕산 선생님 그리고 강혜진 선생님 나아가 아산나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내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깊고 넓은 사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김종오

책쟁이 파워블로거

사진보다 춤이 더 현란한 그는 닉네임은 책쟁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춤쟁이 같다는 사실. 언제나 손에는 사진기를 들고 있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담당하는 포토그래퍼. 14일간 찍은 사진만큼이나 식성도 좋은 밥쟁이. 많은 단원들에게 영감과 자극을 불러일으켜주는 자상한 남자.



내 생에 가장 따뜻했던 시간

김지원

생머리포스 법순이

‘양파 같은 여자’ 처음 보면
뚝 부러지고 딱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지만 친해지면
겉으로 보이는 매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양파처럼 또 다른
매력을 뽐어내는 다채로운
이미지를 가진 여자.
아직도 숨은 매력이 있다는 사실.



“캄보디아에 다녀온 지 수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캄보디아 사람들의 친근하고 따뜻했던 손길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어둡고 질척한 길을 지나 홈스테이를 할 집에 도착했을 때 반갑게 맞이주시며 선뜻 내 손을 잡고, 내가 나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잡아 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나고 그립다.

비행기로 5시간이나 걸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만나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서로의 눈빛을 보며 그저 웃던, 그 웃음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 서로가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화스랑 유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페인트칠을 하다가도 학생들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 찡긋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했다.

특히 이화의료봉사단과 함께 의료봉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봉사했다. 의료봉사팀이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면 더 캄보디아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영어 역사 교육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보면서 즐거워 할 수 있는 벽화를 그리고, 마을축제, 학예회를 진행했던 그 순간에 아자봉 2기 단원들과 캄보디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기에 나는 캄보디아에서의 봉사기억이 너무나도 보람되고 소중하다. 내 생에 가장 따뜻했던 시간, 아산 나눔 재단 청년해외봉사 화이팅!





뜨거웠던 여름날의 추억

김진오

작업패드

무슨 일에서든지 늘 자신의
능력을 200% 발휘하는 능력자.
a to z 못하는 게 없는 만능재주꾼.
'내가 뭘~, 내가 왜~'라고
말하면서도 항상 제일 힘든 일과
굵은일에 앞장서서 나서는
(구)아산직원. 여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아이패드와 함께
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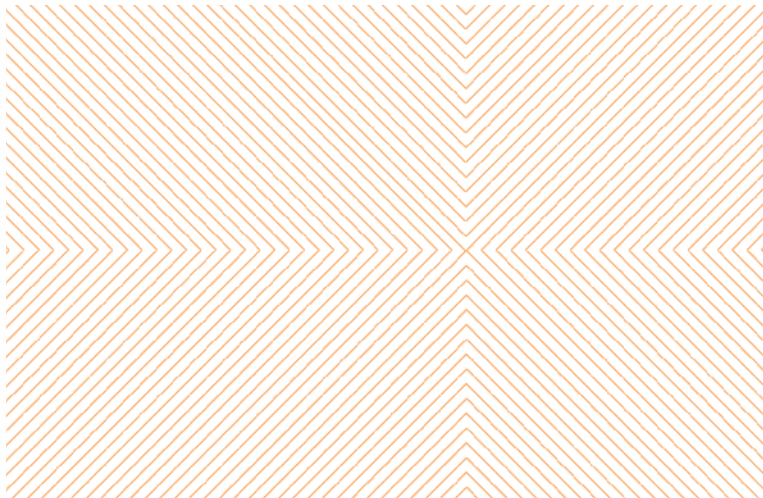
“캄보디아에 가서 3일간의 교육봉사를 통해 우리 조는 연 만들기와, 서예, 부채 그림 그리기를 하였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였고, 특히 연을 만들고 밖에서 함께 뛰놀면서 연을 날려보았을 때 아이들의 행복하고 해맑은 웃음은 나를 더욱 행복하고 뿌듯하게 만들어 주었다.

모든 일정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는 않았지만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토론을 하여 하루하루 우리가 도움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점점 발전해 나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캄보디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직접 준비한 마을축제와 Home Stay이었다. 우리가 손수 준비한 한국전통놀이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했다. Home Stay에서 나는 KIM RANG씨의 집에 갔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녀 2명,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다. **표현하는 방법은 서툴고 낯설지만 우리를 엄청 반겨주시는 마음은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같이 과일을 나눠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다가갔다. 처음엔 우리가 낯설어 피하더니 점점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반가웠고, 헤어지기 전엔 비록 하루였지만 그간에 생긴 정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컸다.

이번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베풀려고 했지만, **정작 돌아왔을 때는 내가 그곳에서 얻어온 것이 더 많았다.**

하나같이 착하고 멋진 우리 단원들과 인솔해주신 혜진 쌤과 덕산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국한됐던 나의 시야를 넓이는 좋은 경험이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버틴 나날들을 통하여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아자봉 2기 사랑합니다! 아자봉 화이팅!!



몸으로 말하고 눈빛으로 통한다

김현덕

현띠기와띠여 애교킹 3현덕

낮에는 다정한 과학 선생님,
밤에는 콧수염 마초가 되어
별자리를 알려주는 최고의
섹시가이 팔색조 매력남. 하지만
며칠간 씻지 않았다는 소문이...
3장의 속옷, 3컬레의 양말,
3일 만에 갈아입은 3현덕.
누가 뭐래도 사람의 마음을
선덕현덕하게 만드는
애교를 부리는 애교킹.



“최종합격통지를 받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무사히 귀국해서 수기를 쓰고 있네요. 6월 25일, 2박3일 사전합숙교육을 받으며, 아자봉 2기 단원들이 처음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만나서 열심히 강의도 듣고 토론도하며 캄보디아활동에 대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전자료와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냥 설렘 것만 같던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씻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먹는 것, 자는 것 모두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걱정을 하며 철저히 계획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파란 조끼에 주황색 손수건을 두른 우리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프놈펜 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조그마한 공항과 습한 공기였습니다. 유령의 도시 같던 새벽의 모습과는 달리 아침의 프놈펜 모습은 활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차선 도로를 가득 매운 오토바이 행렬, 길거리에 줄지어 있는 상인들의 모습, 우리가 탄 버스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아이들...

TV로만 보던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2시간 정도 가니, 끝없이 펼쳐진 논과 드문드문 있는 아자수, 소를 끌고 가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버스가 이화스랑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첫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첫 수업, 기대에 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준비를 많이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꼬마전구 실험을 손짓발짓을 다 하며 알려주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건전지를 사용한 꼬마전구 실험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몸으로 말하고 눈빛으로 통하며, 높기만 했던 언어의 장벽은 더 이상 벽이 아니라 문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로 인사하며, 웃어주는 것! 그것이 나눔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낮 12시에서 2시 사이면 어김없이 오던 소나기, 비가 오면 뛰어나가 비를 맞던 우리 모습들, 밤이면 웅기종기 모여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며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 파이팅 하던 모습, 페인트를 벗겨내던 사포같이 까맣던 밤하늘, 내 머리로 떨어질 것 같던 무수히 많은 별들과 은하수, 떨어지는 별똥별에 소원을 빌던 내 모습, 그리고 너.

꿈같던 2주가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선이 되었고, 그 선들이 모여 면이 되었다는 김택산 선생님의 말처럼,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은 의미 있는 날개 것입니다. 소중한 인연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준 아산나눔재단에 감사합니다.





●● 해외봉사라는 막연한 기대와 부푼 마음을 안고 도착한 캄보디아에서 제일 처음 나를 맞이한 건 덥고 습한 공기와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날씨였다. 그런 날씨마저도 잊게 만드는 자연과 하나 된, 그림 같은 풍경의 이화스랑 유치등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교육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연 만들기였다. 아이들과 함께 방패연과 가오리연을 만들고 밖에서 연을 날렸다. 생각만큼 연이 잘 날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해맑게 웃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좋지 못한 환경에 눈살을 찌푸린 적도 있었고,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아직 봉사를 하기에 많이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의료봉사를 하면서 내가 캄보디아에 와서 봉사를 하는 의미를 찾게 되었다. 의료봉사에서 안내를 맡았는데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힘이 들기도 했지만, 나의 서툰 크메르어에 웃으면서 안내를 따라주신 분들과 고맙다며 인사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힘이 났다. 단순한 감기에도 병원을 가지 못한 분들이 많았고, 지뢰로 인해 신체의 일부가 없는 분들도 계셨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마르고 치아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한 분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다.

이틀 동안 의료봉사를 함께하면서 친해진 Sara를 통해서 언어는 달라도 진심은 어디서나 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학교를 떠나기 전날, 비타민을 함께 나눠먹기도 하고, 힘들 때 서로 파이팅을 외치던 Sara에게 그리울 거라며 선물을 받았을때,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했고, 내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서 고맙고 뿌듯하기도 했다.

아자봉 2기를 통해서 평소 너무 당연하게 여겨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들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국적이 다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도 생겼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 할 수 있고 진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시간들이었다. ●●

진심은 어디에서나 통한다

김현지

양갈래의 캄보디아 소녀

핵심 아이디어뱅크로서
미술2팀을 이끄는 우두머리.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나오는 파워
자신감으로 캄보디아를 휘젓고 다녔다.
순진무구한 얼굴로
멈추지 않은 네버 스타트 페인트칠.
나이답지 않은 의젓함과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애교로 뽐낼 똘치 애교덩어리.
늘 웃고 다니는 그녀의 미소는
가히 '캄보디아의 미소'로
명명될 것.



그들이 준 선물



남권우

남권우 아자봉의 빨간 안경

큰 키와 착한 심성으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훈훈함을 주던
사진팀 엘리트.
경상도 남자답게 걸은 아메리카노 같고,
속은 핫초코 같은 남자.
중저음의 목소리로 공 앞에서는
소년으로 돌아가는 순수함.
묵묵히 힘든 일을 찾아서 하는
투철한 봉사정신까지
두루 갖춘 이 남자...
아... 갖고 싶다!



●● 지난 7월 우리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은 낙후된 지역의 아이들의 꿈의 텃밭을 일궈주기 위해, 또는 우리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꿈이라는 용어를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접했을 때, 그들이 마냥 가슴 벅차고 긍정적인 의미만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거기서 캄보디아인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다. 의료봉사에 3일 동안 수없이 몰려들던 모습과 깨끗한 마실 물이 없어 바깥에서 구매해야 하던 장면이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인들은 웃으며 충실히 살아가고 있고, 삶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꿈이라고 포장할 필요가 없는 나름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꿈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고 발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존 고다드의 말이 생각난다. 봉사하러 가서 오히려 내가 그들의 자세에 더 많은 걸 느끼고 왔다. 캄보디아 애들이 갖지 못한 기회 위에 누워서 생각만 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루하루를 손으로 적고 발로 실천하는 법을 배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일간 우리가 캄보디아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교실에서든 야외에서든 순도 100%의 노력을 건네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홈스테이 때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농사일을 나가려고 새벽4시에 일어나던 장남과 태양광으로 낮에 충전한 스탠드로 밤에 영어를 공부하던 장녀의 모습은 캄보디아에 가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을 어떠한 마음가짐을 나에게 주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준 좋은 기억들이 스콜처럼 한 때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남아 있는 추억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

문지현

귀여운 대구사투리가
매력적인 그녀!

‘오빠야’ 한 마디면 남심 올킬!
밤마다 다이어리를 쓰던 천상 여자.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벽에 그려주던 예비 선생님.
시크한 외모와 달리 푸근한 대구
사투리에 건강미와 예코미까지
두루 갖춘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묵묵히 뒤에서
일하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따스한 마음씨를
가진 완소녀!

나 자신을 내세워 떠나간 그 곳에서 나는 우리가 되었다



“ 우리의 흘러온 삶은 모두 달랐다. 활동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지금의 우리의 삶 또한 제 각각이다. 앞으로 다가 올 나머지 시간들도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는 끝내 만났다. **시시한 듯 보여도 어찌면 이건 기적이고 운명이다.** 평생 모르고 지나쳤을 우리, 서로는 이제 지켜보고 감싸 안고 소통한다. 그래서일까? 지났던 시간은 늘 아쉽다지만, 우리의 시간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저만치 사라져버려 몇 배나 더 허전하고 시리다.

아직도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뜨끈한 13번의 밤을 떠올려 본다. 이 짧은 2주가 세상을 뒤흔들 수는 없었지만, **어떤 경험과 공부도 우리의 20대를 이만치 단단하게 다져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 곳으로 떠나기 전, 나는 이번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내게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만 했었다. 나누고 오자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내세워 떠나간 그 곳에서, 도리어 ‘나’는 ‘우리’가 되었다. 채워온 줄 알았더니, 도리어 비워왔다.** 그러고 보니 웃음 하나마저 나누면 행복이더라.

돌아보니 이렇게나 아름답다지만, 사실 활동 당시에는 의문이 있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우리의 나눔이 이들에게는 도움일까? 혹시나 우리의 ‘봉사’가 단지 허울 좋은 ‘행사’인 건 아닐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면서 어렵פות 이 답이 다가왔다. **마음의 때를 벗기듯 난간의 녹을 벗기고, 페인트를 입히면서 우리의 메말랐던 가슴 또한 색을 입었다.** 벽화가 조금씩 완성되어갈 때, 우리 마음에도 자그마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길을 내기 위해 나무를 끊어지고 땅을 꺾꺾 밟으며 오갈 때, 우리가 밝혀낸 ‘길’을 꺾꺾 밟으며 오갈 사람들이 있을 것임에 뿌듯했다. 우리가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님에도 “아썩”(감사합니다.) 하며 웃어주며, 작은 공연과 축제에도 행복해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아썩”했다. 그 곳에, **편리함도 빠름도 없이 살면서도 그 어느 때 보다 행복한 우리가 있었다.**

함께함으로 그저 축복인 날들이 있었더랬다. 한줌 비에도 행복하고, 짧은 휴식에도 감사하던 시간들이 있었더랬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움도 금세 토해내고 웃어버릴 동료들도 있었더랬다. **돌아오면 더 열심히 살자고 마음 모아 다짐하던 저녁, 미완성인 청춘들이 모여 작은 성공을 완성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 ●●

사랑은 사랑을 나눕니다

박수지

안녕하소 잘 가소 또 보소

〈박수지는 누구인가〉는 그녀의
기량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책이다.
당신이 어떤 견해를 가졌든 그녀는
당신을 멋지게 조롱하고, 여태껏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았던 간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두둥!
Coming SOOOOOOOOOON!

위의 문구는 면접 당시 내가 외쳤던
말이었다. 그리고 활동후기를 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14일
간의 캄보디아에서의 봉사를 떠올리며 '나는 과연 면접 때의 저
말을 잘 실천 했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 나를 포함
한 아.자.봉 2기 단원들 역시 그랬겠지만 이화사랑에서 허투루 보
낸 시간은 없었다.

위생교육 당시 전지뒤편에 숨어서 어눌한
캄보디아어로 진행한 역할극, 마을축제 때 차력을 선보이기 위해
숙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연습했던 콧바람으로 페트병불기, 식사
당번 때 깎은 과일들, 하루하루 완성되어가는 벽화 등 주어진 일
을 할 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역량을 내 스스로가
끌어냈으면 하길 바랐고, 그 역량들을 다른
단원들과 현지인들에게 나누려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한다.

큰 무언가를 이루기엔 짧을 수도 있는 14일
이었지만 다양한 활동, 특히 홈스테이나 마을축제 등의 참여를 통
해 처음에 이질적으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과 현지 내에서의 환경이나 문제점 등을 알게 되어 개
인적으로 생각의 창이 넓어졌고, 봉사단 단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
과 함께 이루는 것에 대한 공동체적인 의식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나눈 것 보다 얻은 게 많은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낯선 곳에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지
난 14일 동안 같이 땀 흘리며 해온 봉사, 그 속에
웃을 수 있는 재미와 서로 기운 나게 해줬던 친목
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2기 파이팅~



캄보디아에 전하고 온 한줄기 ‘빛’

박창범

한 끼에 3인분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부드러움.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로
 단원들을 깨알같이 챙겨준 포도알
 같은 남자. 남을 위해 자신을
 녹이는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
 저적임과 유머러스함을 겸비한
 세라남 단벌신사.



“나’뿐만이 아닌‘우리 모두’
 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건 고
 등학생 시절부터였다. 그때부터 봉사동아리에서 꾸준히 봉사활
 동을 해오며 내가 누군가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사
 람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여름 나에게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단 2기’라는 기회가 주어졌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출발했던 캄보디아 해외봉사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
 들었다. 우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있던
 세상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
 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무언가 실천으
 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단순히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얻는 것이
 더욱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과 정말 멋진 팀원들을 만났다는 즐거
 움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
 항에 머물면서 캄보디아에서의 내 모습을 회상해보니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 덕분에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진실 된 마
 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일
 인지 알게 되었고 뿌듯할 따름이다. 앞으로 이런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정성이 모여 커다
 란 빛이 되고 그 빛으로 인해 이 세상 소외된 사
 람들이 점차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쫄리업쑈어

백지현

길라임의 미성년버전

어딜 가든 사랑 받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아자봉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애교쟁이
막둥이. 언니들 모두에게
밥서들을 시키는 열아홉의
장트러블. 처음 타 본 비행기에서
깽 소리 지르던 그녀의 광주
하이톤의 목소리.
샤브샤브 앞에서 무너진
허벌라이프.



●● 해외봉사단원으로 뽑혔을 때만 해도 설렘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출국 날이 점점 가까워질 때는 너무나도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과연 내가 해외봉사를 가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과연 내가 현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과 혼자만의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캄보디아에 도착해 이화스랑 초등학교에서 바로 교육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걱정했던 것들이 무색해질 만큼 현지 아이들은 순수한 눈동자로 수줍은 미소와 함께 두 손을 모아 ‘쫄리업쑈어’를 외치며 우리의 수업 지도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현지 아이들에게 가슴 찡한 감동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첫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땀벌에 나무를 잘라 옮기는 작업과 열악한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페인트칠을 하며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저의 모습을 보며 내가 직접 이 곳에서 결과물을 남겼다는 생각에 나도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웬지 모를 뿌듯함에 잠들기 직전 까지도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던 그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 숙소에 도착하였을 때는 열악한 환경을 보고 경악하며 이 곳에서 어떻게 2주를 버티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얼마나 축복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으며 작은 것이라도 소중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첫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내렸을 때 당황스러워 하며 건물 안으로 신속히 도피하던 우리는 2주 동안 생활하며 마치 현지인처럼 비가 내리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비가 오면 신나서 뛰어나가 비를 맞으며 다함께 즐겁게 웃었던 기억, 대야를 꺼내 놓고 빗물을 받아 씻었던 기억은 아마 비가 내릴 때마다 제 마음 속엔 캄보디아에서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39명의 각각 개성 있는 성격들이 하나로 뭉쳐 이루어낸 값진 결과물이 영원토록 간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린 제게 이런 값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아산나눔재단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여태껏 무엇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준비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끝내 이뤘던 적이 있었
던가. **아자봉은 불확실하고 무미건조한 나의 삶에
전환점이 되어 주었다.**

귀국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이화스랑은
점점 더 기억 속에서 선명해지지만 한다. 수줍게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던 아이들을 보고 마냥 행복했고 잠목제거와 배수로공사
를 하며 나뉘 마셨던 물 한 모금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화스랑에서의 하루하루는 특별한 행복의 연속이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릴 때의 그 희열은
아마 한국에서는 다시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화스랑에서는 곁에 있는 소소
한 것들에게 행복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진정성을 가지고 나눔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려 했고 초심을 잃고 방황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나로 인해 이화스랑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자봉2기로 인해서는 단
원들이 흘린 땀과 열정만큼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
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니 확신할 수 있다.

지구촌 빈민국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
이나마 행복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지원했었던,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옆에서 나누고 싶어서 지원했었던 해외봉사
였다. 희생하고 나뉘주고 오려 했지만 해외봉사가 끝난 지금 정작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아픔을 치료하며, 더 많은
것을 얻고 온 사람은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약 2주 동안의 해외봉사였지만, 이 2주 동안
의 해외봉사는 나의 남은 20대를 바꿔놓을 것이다. 끝으로 멋있
다고 밖에 할 말이 없는 아자봉 2기 단원들과 누구보다도 고생하
신 강혜진, 김덕산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감사합
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내게 남겨준 것들

서동찬

오빠가~형아가~로 불리는
서동찬 열차

나긋나긋한 말투의 다정한
충청도 사나이. 자신의 위치에서
늘 최선을 다해 임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어린 왕자.
동생들을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부드러운 매력과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친
매력의 소유자. 온몸이 파스
투성이가 될 때까지 연습하는
열정의 소유자.
오빠만 믿어~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찾아서

송인태

사물놀이 인간문화재

아버지 같은 인상을 가지고
할머니 같은 성격을 가진
노력봉사팀장.
20대 초반의 모습으로
분위기메이커가 되었다가 위엄
있는 만형으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장난끼 많은 얼굴 속에
누구보다 동생들을 아끼고
잘 챙겨주는 메콩강 같은
깊은 마음씨를 가진 오라버니.



설레임 반 두려움 반... 드디어 캄보디아로 출발!! 편집 때 당당히 외쳤던 “스펙 쌓기가 아닌 해외여행이 아닌 조건을 바라지 않는 진정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되새기며 13박 14일의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캄보디아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처음 프놈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특유의 냄새, 입국 심사하는 무표정의 캄보디아 공항직원들, 적응 못했던 첫 아침식사, 길거리의 수많은 오토바이들과 이화스랑 학교로 가는 길의 톨게이트, 정체불명의 벌레들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따가운 햇볕과 갈증, 벌목작업과 수없이 진행했던 사포질과 페인트칠, 그리고 우리의 노력봉사를 방해했지만 우리에게 사위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내려준 비, 웃는 얼굴로 반겨주었던 이화스랑 학교 아이들과 예쁜 강아지 하나와 둘이, 무언가 하나라도 배움을 전하고 싶었던 교육봉사,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마을축제, 너무나 설레었고 기대했던 홈스테이, 수많은 연습으로 완벽한 공연을 보여주고 싶었던 학예회 사물놀이 공연, 정말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드는 앙코르와트, 또 다른 배움을 얻게 해 준 의료봉사와 문화체험, 그리고 우리의 엄마 강혜진샘과 아빠 김덕산샘, 그리고 나와 13박14일을 동고동락한 39명의 친구들..... 지금도 입가의 미소를 띠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다.

20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번 해외봉사활동 29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지원했던 그 용기만큼 나는 그 누구보다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싶었다. 캄보디아에서 13박 14일 동안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을 하면서 39명의 친구들을 얻었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취급했었던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행복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의 가치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현지인들은 물질적으로 분명 우리보다 풍요롭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행복해 보였다. 아마도 그건 행복이라는 가치의 기준이 우리와는 다르게 설정되어서가 아닐까 싶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3박 14일간의 캄보디아 해외활동 아마도 앞으로 내 삶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



심명정

내 안에 캐리어 있다

절대로 서울 말투를 쓸 수 없는
부산 꾸꾸미. 벌목을 하면서
여성성을 잃고 차력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었다.
스칸(스님간지)과 호피무너를
오가는 반전패션의 소유자.
조신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언니, 오빠들 모두의
정곡을 찌르는 독설가.

파이팅 있게 아자봉! 파이팅!



“ 한 여름 밤의 꿈만 같던 2주가 지나 버렸다. 숨이 막히는 더위 가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내 방에서 캄뽕 스포, 캄보디아를 추억하며 후기를 쓰고 있다. 21살 여름, 선물 같이 다가 온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 그 선물 속에 보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21살 작은 나에게 큰 세상을 열어 주었고 따뜻한 사랑을 심어 주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익숙하지 않은 마우스를 열심히 눌러보려 한 이화스랑 친구들, 동전 던지기 후 반납하지 못한 동전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활동이 끝날 때까지 날 기다렸다가 동전을 준 캄뽕스포츠 마을 친구, 진흙탕을 잔뜩 밟고 간 날 위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시고, 손너처럼 날 대해 주신 홈스테이 식구분들. 큰 도움이 됐을지는 못할 지라도 우리의 서툰 솜씨로 한 따뜻한 나눔의 몸짓은 이화스랑의 친구들에게, 캄뽕 스포의 사람들에게 전해 졌을 것이라 믿는다.

취업이다, 경쟁이다 격하게 바쁜 이 시대 속에 발대식 날의 정진홍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학생이기에 대학생이기에** 즐길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과 추억을 캄보디아에서 얻었다.

작막한 도시 대신, 푸른 이화스랑 학교에서, 학창시절의 친구들처럼 진심으로 서로를 대해준 강해진 선생님과 김덕산 선생님을 포함한 단원들 사이에서의 **매 순간 순간이 나눔이었고 행복이었다.** 내게 14일간의 커다란 선물을 준 아산나눔재단에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파이팅 있게, 아자봉 파이팅!! ”

●● 아자봉 2기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막상 마냥 기쁘기 보다는 2주 동안 해외봉사를 가면서 하지 못할 일들부터 생각이 났다. 아르바이트, 과외, 스터디, 학원 등등 개인적으로 벌려놓은 일이 많았다.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아자봉 2기는 큰 기회비용을 지불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 처음 3일 동안은 주위 환경에 불평하는 나를 보면서 '아! 아직 나는 이런 해외봉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활동에 적응되고 환경에 적응되면서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왔다. 또한 단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맑고 깨끗했던 환경과 함께하며 사색했던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고 우리가 했던 봉사들은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에게 캄보디아는 뜨거웠다. 햇볕이 뜨거웠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웠고 그로 인해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의 인생 중에 고작 2주뿐이었지만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 지표가 될 2주였기에 아자봉은 나에게 고맙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

뜨거운 캄보디아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오다

심원지

수북한 눈썹라인 크메르원지

러쭌 리에리에 릴리 썸빠이 ~
수북한 눈썹라인의 그녀는
하이톤의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아랫비아 노래를 불러주었다.
머리띠와 배기바지로 캄보디아
패션을 완성시킨 패셔니스타.
한국말보다 캄보디아어를
더 잘하던 그녀의 출생의
비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 처음 보는 마을과 시장 모습,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보며 인사해주는 순수한 캄보디아인들, 맑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은 어느 곳에서나 펼쳐져 있었다. 쑥스러워 고개를 돌리는 아이, 재미있는지 웃으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아이, 적극적으로 브이를 하며 찍는 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진을 찍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것, 인사를 하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사진을 찍으며 함께 웃고 행복했기를 바란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과,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지낸 14일은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걱정들을 잊을 수 있게 해주었다. 반대로 한국에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배려와 이해심이 부족하고 웅졸한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에선 목표만을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나였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목표보다는 나를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엔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지만, 다녀와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와서 너무 고맙웠다. 캄보디아 해외봉사는 나에게 함께하는 사람들, 아자봉 동료들을 주었고, 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내가 변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한국에 와서 캄보디아 사진들을 보면 다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살면서 힘들어지고 내가 불행해진다 느껴질 때, 2012년 7월 무더웠던 캄보디아를 생각하며 다시금 힘을 얻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갖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다. 항상 옆에 있어준 동료들, 항상 웃어주던 캄보디아 사람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

마음 속 울림의 시작 캄보디아



양수지

이화스랑의 패셔너더 시스루룩너

몸의 절반만한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는 대표여신. 만년필이 잉크를 담아 세상을 표현하듯, 카메라에 세상을 담아 표현하는 만년필 같은 존재. 백미러에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란 문구가 있듯이, 그녀에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매력 터지고, 따뜻한 마음이 있음'이란 문구가 숨어있다.



‘봉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라



안성용
잠쉬만~

아자봉의 최고 분위기메이커.
“잠깐만” “잠쉬만” “잠오나”
“사랄랄라” 등의 다양한 유행어를
남긴 부산 싸나이.
유머러스 하지만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따도남.
관광지에서는 애정촌 남자3호
스타일, 이화스랑에서는
강남스타일.
당신이 있었기에 미소 한 번 더
지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그저 취업준비
만 급급하여 대학생다운 삶을 망각해온 나. 대학생 시절에 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일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다 해외봉사에
지원하였다.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어서일까 50:1이라는 경쟁
률을 뚫고 ‘아자봉 2기’에 합격하고, 전체 39명의 단원을 이끌
어나갈 ‘부팀장’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무거운 직책을 어깨를
 짊어진 채 캄보디아로 향했다.

2주 동안 우리의 봉사활동 주 무대였으며
거주지였던 ‘이화스랑 초등학교’에서 무더운 날씨 속에 한정된
생수병으로 갈증을 해결하고, 41명이 사워할 물을 아끼고, 태
양열로 쓰는 전기를 아껴 쓰는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 그 동안
내가 했던 생활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현지에서 교육봉사의 일환으로 진행한
‘체육수업’에서 꼬리잡기와 릴레이를 하며 한 아이도 빠짐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며, 문득 똑같은 활동을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진행했다면 과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었다. 뜨거운 태양아래서도 서로가 웃고 즐기는
아이들에게서 소박한 웃음을 볼 수 있었다. 홈스테이
에서 만난 한 노부부에게는 전기 하나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그들의 소박한 삶 속에도 그들의 마음은 풍족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을 하며 때
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과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
만 꼭 무언가를 이루고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
을 가지기보다는 사소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하
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임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9명의 새로운 사람들과 경험들, 무엇보다
나의 대학생활을 멋지게 마무리하게 해준 ‘아산나눔재단’에 정
말 감사한다.

더불어 사는 삶

양정주

허버 웃기지라잉

호빵은 겉만 보면 허멀건 것이 뭐, 맛
이나 있을까란 생각이 들지만,
속을 보면 그 속에 맛있는 것이
가득 차 있다. 처음에는 외모에
열중하는 모습에 그냥 허멀건
것이라 생각했으나, 2주간
정주의 속 짙 찬 호빵 같은
봉사를 보면, 호빵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구수한 광주 시투리 만족!



“우공이산.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티끌모아 태산, 등 작고 꾸준한 노력이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은 어느 나라에 가도 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2주 가까이 지내며, 우리 아자봉 2기는

이 말들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왔다. 생판 모르던 39명이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목적으로 모였다!!

해외봉사가 처음인 우리는 처음부터 손발이 척척 맞았던 것도 아니었고 면접 볼 때 그 마음가짐을 잊은 채 내가 여기서 무슨 도움이 되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 인가 하는 의심도 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진 채 며칠을 흘려 보내기도 했었다. 항상 수동적인 태도로 활동에 임하던 나는 활동이 이어져 나갈수록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 점점 주체적인 태도로 해외봉사단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 항상 인솔선생님들과 서로 느낀 것과 고칠 부분 등을 이야기하며 의논했던 결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손발이 척척 맞아갔다.

처음엔 뭐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 짓고 돌아가면 다행이겠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완벽한 착오였다. 우리 39명이 완벽히 한 뜻으로 뭉치자, 첫 주말을 보내기 전에 난간 페인트칠조차 마무리 하지 못했던 우리가 벽화, 족구장, 벌목, 수로 만들기 등 수많은 작업을 똑딱 할 수 있었다. 이번,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단 활동은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렸던 것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아주 멋진, 그리고 다신 없을 경험이었다.”

윤민희

스무살의 스모키

겉으로 강한 척, 하지만 속은
한없이 여린 마을축제 팀장.
시원시원하고 포스 넘치는 인상에
처음 봤을 때 다가가기가 약간
두렵지만 알면 알수록 정 많고
성숙한 막내. 비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 언니들 양동이를 책임진
부지런한 이쁘니.
“저 스무 살 맞아요!”
하지만 민중 한 번 까보자.

디딤돌이 될 14일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 내가 아
자봉 2기에 합격하고 2주간의 봉사활동을 잘 끝마쳤으며 이제
는 활동보고서를 쓰고 있다니! 놀랍고 신기하고 자랑스럽기까
지 하다.

국내에서만 봉사하다가 해외로 나와 봉사
를 하니 많이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만 곧
다른 봉사단원들의 모습을 보고 반성하고 배울 수 있었다. 힘
들어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 단원들이었고 지
쳐있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나는 부족한 점
이 너무 많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일을 해내는 것에 어
려움과 부족함을 느낀다. 하지만 이번 아자봉 활
동을 통해서 앞으로 내게 다가올 새로운 것들에
대해 겁먹지 말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배워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주 동안 아자봉 2기
단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번 경험은 내게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



나의 터닝 포인트

윤희원

깔깔깔깔, 성우 톤 웃음소리

사포질로 마음을 다스리고,
페인트칠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녀.
2주 동안 이화스랑의 난간을
책임졌다. 맑은 일은 묵묵히,
그리고 완벽히 처리하는 멋진
여자. 결코 미워할 수 없는
그녀의 연기 톤 웃음소리.



“ 후기 작성을 위해 캄보디아에서 밤마다 랜턴 불빛에 의지해 썼던 일기들을 들춰보았다. 설렘과 벅참, 행복감과 안타까움, 불편함 등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들의 눈 속에서 ‘불쌍하다.’라는 단어를 찾으려 했던 내가 부끄럽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웅장하고 화려한 앙코르와트에서 차로 조금만 나오면 비포장도로와 열악한 건물이 반기는 최대 빈민국 중 하나 캄보디아.

나는 거리를 누비며 돈을 구걸하러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그 나라가 안타깝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론 가난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이 부럽고 내 욕심이 부질없나 싶기도 했다. ‘행복함’은 순간 지나가는 감정이라 불안하지만, ‘편안함’은 알맞은 온도의 목욕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긋하고 기분 좋은 것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내가 캄보디아에서 그들에게서 느꼈던 감정은 아마도 ‘편안함’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준비해 간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고,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들과 생활하면서 일방적인 전달로는 결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나를 먼저 보여준 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소통하는 것이**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다. 나는 사실 우리 봉사자들이 준비한 활동은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의 추억을 얻어가고 교류를 통해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살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숙제’로 남겨지곤 한다. 이번 해외봉사는 내게 ‘숙제’가 되었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어려운 이웃, 더 어려운 나라는 얼마든지 있고, 그들을 돕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도와 줄 수도 있고, 한 끼 밥을 챙겨주는 것도 그들에게겐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캄보디아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점점 알게 되고 나니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당장의 하루살이가 아닌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번 캄보디아 봉사활동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숙제’의 시작이 되었다. ”

의미 있는 우리들이 13박 14일의 추억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거대한 행성 두 개가 만나는 것과 같다” 우연히 서점에서 읽었던 책 속의 한 구절. 아자봉의 만남은 저에게 이 문장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여러 활동들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활동을 마친 후 그 활동 자체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함께 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다시금 활동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 13박 14일 동안의 긴 사색의 시간들이 **저를 가슴 벅차게 했고 더 고민하게 만들었고 제 삶을 더 소중히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해외봉사를 왜 가느냐 하는 물음을 안고 향한 캄보디아, 그리고 캄보디아에 다녀온 후 그 물음표들이 해답의 느낌표로 변한 사실에 풍부해짐을 느낍니다. 39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함께했던 이화스랑에서의 나날들. 우물물에서 서로 핼프질 해주며 머리 감던 날들, 힘차게 쏟아졌던 빗줄기를 피해 먹었던 점심과 저녁.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 할 일들이 이화스랑에선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과 함께여서 그 의미가 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각자가 원하는 길을 향해 우리 모두 걸어가겠죠. 당장 어학점수, 자격증, 학점관리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는 언니, 오빠들의 고민. 이 모든 게 20대 청춘만이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더 열심히 즐겨주마!’** 제 다이어리 한 쪽에 적혀있는 다짐입니다. 비록 아자봉으로서 우리들의 만남은 짧았던 13박 14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아자봉으로의 만남을 넘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생의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단 2기를 통해 만난 여러분 모두 저에겐 한 분 한 분 의미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13박 14일 행복했습니다. ●●

이성미

치명적인 다리라인

‘니 마이켰네~’ ‘야 얹아있냐?’
낮에는 공기반장이었지만 밤에는
별 총총 미래에 대한 고민 많은
진정한 청춘 열매, 까르보나라
같은 영어 발음으로 능력자 인증.
팜파탈 같은 그녀에게 어울리는
완벽한 바디라인도 빼놓을 수
없다. 누가 그녀를 무난한
성미라 했는가...
그녀의 매력,
지금부터 시~작해요!

따뜻하게 기억될 우리들의 이야기 캄보디아

이정식

꽃돌이 막내

여자 못지않은 수다로 여자
단원들의 밤잠을 못 이루게 한
폭풍수다. 아자봉의 최장신임에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를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의료계의
나이팅게일이며 남자팀의 메디남.
유일한 미필남이라는 이유로
문간자리에서 자야만 했던
꽃돌이 막내 정식아,
좋아요? 좋아요?



“책상 앞에 놓아 둔 섬포를 두드릴 때마다, 그 통통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캄보디아에서의 나날들이 보이고, 즐거웠던 우리의 이야기가 컷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화스랑 학교에서의 14일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보물이 되어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캄보디아에 와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현지인들과 어떻게 교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의료보조봉사활동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현지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조금이지만 그들의 말을 배우고, 이해는 하지 못해도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길을 온 분들께 약과 비타민을 챙겨드리며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쨌’, ‘고맙습니다.’라는 많은 분들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을 했던 신 콤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도 크나큰 행복이었습니다.

‘너가 해외봉사를 갈 돈이면, 너가 줄 수 있는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너를 파견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물론 파견 비용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해외봉사단이 파견되면서 **우리와 캄보디아 사람들이 내면적, 외면적으로 성숙, 변화 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사회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때 나는 우리의 사랑과 정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퍼져나가서 오랫동안 가치로는 매길 수 없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해외봉사단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언제 또 캄보디아에 가서, 또 이화스랑 학교를 갈 지 모릅니다. 영영 못 가게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사랑을 나누고, 그 자리에 더 큰 사랑을 채워온 그곳이기에, 몸은 한국에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이화스랑을 보고 있을 겁니다. ●●

캄보디아에서 사랑을 짓다



이지현

제주도 여신



po션크림wer! 노출된 모든 부위를 가리는 준비된 여자.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의 매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여러여리 청순미. 도라에몽 가방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든 물품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여자 물류1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생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게다가 예쁜 얼굴에 고운 마음씨. 신은 불공평해!

“ 시내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그 곳을 처음 방문했던 날이 생생하다. 사전교육에서 들었던 것처럼 덜덜덜컹 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비로소 이화스랑과 만났을 때에는 “엇 생각보다 좋네?”였다. 흙과 돌을 벗 삼아 노는 아이들의 소리와 사람들도 다 더 많이 마주쳤던 소페들. 준비했던 교육봉사를 시작하고, 어설픈 페인트칠 연장을 준비하면서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마주친 아이들의 수줍음 가득한 미소와 수업들을 들을 때의 진지한 모습들은 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다.

지내면 지낼수록 잘 알지 못했던 이곳의 역사와 진솔한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활동을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곳에서의 나날들은 **나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의 부족한 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점 등을 배우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그들에게, 동시에 우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봉사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낯선 우리를 경계하기도 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더 익숙해지고 눈인사를 보내는 사이가 되었다.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그때 옆에서 함께해준 소중한 팀원들과 인연을 만들 수 있어서 덜 힘들었고 더 뜻 깊었던 것 같다.

아직 20대, 꽃다운 청춘을 살고 있지만 지금의 날들이 앞으로의 우리를 지탱해 줄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젊음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우리가 만든 캄보디아에서의 추억은 우리 모두를 성장하게 만들었다. 이곳에서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받은 사랑을 돌려주며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다.

행복한 기억, 참 고맙습니다

“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몇몇의 믿음직스러운 오라버님들과 87과 88의 경계선에서 형클어진 족보를 만들며 만난 가장 성실히 일한 든든한 나의 친구들, 그리고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언니, 누나라고 불러주며 잘 따라준, 또 잘 챙겨준 많은 동생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마음을 나누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인지 단원들에게 마음을 많이 열지 못한 것 같아 뒤늦게 미안함과 아쉬움이 듭니다.

스무 살 때부터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정신 없이 바쁘게 살았던 저에게 **캄보디아에서의 2주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맑은 하늘과 사방으로 펼쳐진 푸르른 산을 보며 느낀 마음의 여유, 밤하늘에 쏟아질 듯 빛나는 수많은 별을 보며 나는 대화를, 두 발을 흥건히 적셔도 온 몸이 흠뻑 젖어도 좋았던 빗소리.

한국에 있을 때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낀 것도,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과 힘들게 땀 흘리고 나눠 마신 물의 소중함도, 휴대폰 인터넷 등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로움을 찾은 것도, 너무 당연해서 잊고 지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봉사는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려는 내가 지양하던 어른의 모습이 되어가려는 찰나에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 또한 봉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봅니다.

이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위치를 반짝반짝 빛내고 있을 39명의 단원들이 2012년 7월, 우리가 함께 보냈던 캄보디아의 여름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추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해주세요. ●●



이진명

자봉의 왕언니.
영킨 실타래의 시작점

87, 88년생 사이에서
줄다리기 중. 친구 같은 장난스러움으로,
동생 같은 편안함으로
엄마 같은 포근함으로 동생들을
다독여주던 사랑스러운,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하는 거침없는 언니.
아이들과 잘 놀아주던 순수한
눈망울이 기억에 남는다.
우월한 기력으로 화장실
청소할 땐 정말 반할 뻔.



우리의 길은 지금부터

기말고사를 치고 나오는 순간 확인해서 더욱더 기분 좋았던 최종 합격 문자. 그때 이후로 꿈같던 2주가 손살같이 지나갔다. 지나간 2주는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나는 그 2주를 후회 없이 노력했으므로 나에게 사랑스러운 2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한가지는, **무언가 채워서 오기보단 채울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담을 순 없다. 무언가를 담기 위해선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한데, 2주간의 캄보디아 생활은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었다. 취업, 불완전한 미래 등의 고민을 비우고 오직 봉사활동만을 하면서 돌아온 지금, 난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제부터 조금은 산뜻한 기분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낯선 곳에서의 경험들은 내가 돌아가야 하는 곳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행복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처음 이화사랑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표정에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2주간 지내지?”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었는데, 하루하루 적응을 해가면서 하루에 한번 내리는 빗물에도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물이 부족해도, 전기가 없어도 참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의 나의 모습은 사소한 것 하나 없어도 불평에 짜증만 냈던 것 같아 부끄러워졌다. 문득 드는 생각에 사전교육 때 “왜 여러분을 해외봉사 보내는지 생각해보고 답을 내려서 돌아오라”고 말을 하셨는데, 해외봉사를 다녀온 지금부터가 그 답을 찾아가는 진정한 과정이 아닐까 한다.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순수한 웃음이 맹렬했던 캄보디아의 햇살처럼 내 가슴 한편에 강하게 남을 것 같다. 되돌아보니 2주간 꿈꾼 것처럼 참 행복했었습니다. 단원 여러분,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아자봉! 화이팅!”

이태우

내가 교육팀장이라는 ‘점’

특이한 말투와 트레이드 마크인
색소를 날리며 교육봉사를
책임진 없어서는 안 될 권력의
카리스마 핵심 인물.
아자봉의 최고 스타일남(?)인
그는 어머니가 주신 헤라
선크림을 아침마다 챙겨 바르는
세심남이기도 했다.
그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앞머리는 왁스 없이도
올라간다는 후문이...







꿈처럼 아련했던 나눔의 실천

●● 누구에게나 그렇듯 새롭다는 것은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 열정을 찾게 해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을 만나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었고, 일상에서 잊고 있었던, 다짐했었던 것들이 다시 생각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운 것들은 내가 새롭게 도전하게 될 것들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 주었다.

어느새 2주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해외봉사활동 기간 동안 부족했던 것에 아쉬움이 남지만, 생각해보면 꼭 남은 것이 그것만은 아니다. 아자봉 2기 단원들과의 인연이 남았고, 그들과의 좋은 추억이 남았다. 또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마음 속 깊이 남았다.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나 역시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물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모습은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던 곳 주변으로 더 넓은 뭔가를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다.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는 삶의 소중한 부분과 주변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고, 나는 그 기회를 아주 운 좋게 잡은 사람들 중 하나이다. 13박 14일 동안 소중한 부분을 뒤돌아 보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기회를 준 아산나눔재단 해외봉사단에게 감사한다.

코를 찌르는 독특한 향신료 냄새, 후덥지근한 날씨 속 캄보디아에서의 2주는 깨지 않기를 바라는 길고 긴 꿈이었다. 한 번도 밟아 본적 없는 낯선 땅 그곳에서 39명의 단원들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아래서 땀 흘리며 나눔을 실천하고, 밤에는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기억들은 꿈처럼 아련하다. ●●

이태훈

태훈훈남, 비폭력 비저항 간디작살

아자봉의 든든한 팀장이자 1등
신랑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어디든 몰래 나타나서 한명한명
챙겨주는 자상한 매력이 있는가
하면, 비폭력 비저항을 지향하는
간디작살의 매력까지.
그는 2주간 매력 제대로 터진
우리들의 훈남이었지만
스스로를 실속이 없다 말하는
안타까운 매력남이기도...



공항에 도착하자 느껴지는 덥고 습한 날씨는 앞으로 14일간 일정의 험난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프놈펜을 출발하여 캄풍 스프에 있는 이화스랑 학교에 도착하고 교육봉사, 노력봉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위생, 미술, 과학, 영어, 체육 과목의 교육봉사와 난간 페인트칠, 벽화 그리기, 벌목작업 등의 노력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Home stay, 의료 봉사, 마을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현지인 가정에서 지냈던 하루를 잊지 못합니다. 이화스랑 학교 인근 마을에 있는 “Nob”네 집에서 Home stay를 했습니다. Home stay 출발 전, 크메르어를 사용하는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을 걱정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Nob”이 영어를 사용할 줄 알았고, “Nob”을 통해서 가족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생이자 농부이지만, 대학교에서 학 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간단한 영어문장과 몸짓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 할 수 있었고, 밤하늘에 가득한 모기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까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해가 지면 어두워지지만 Nob은 책상 위에 작은 호롱불에 의지해가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Nob의 모습을 보면서,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더 큰 것을 원하지는 않았나 하며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만 내려도 너무 즐거워하고 뛰어 노는 아이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베풀기 위해 간다고 생각했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39명의 단원들과 함께 웃고 화내며 지냈던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제 마음 속에 남아있습니다.



가슴 속 별이 될 캄보디아

정용환

용환언니

‘안녕하세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차가운 도시 남자의 반전. 완벽한 듯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매력의 소유자. 매순간 진지하면서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몸빼초차 어색한 남자. 여자보다 더 뛰어난 손놀림으로 미산가 열풍을 일으킨 용환언니.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



“ ‘해외봉사단’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웠습니다. 명색이 봉사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서 현지에 민폐만 끼치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곳에 가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열흘 남짓 있으면서 한일은 어찌 보면 많은 일이지만 현지 인부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일을 처리했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산나눔재단에서 우리에게 현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님을 생각하니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봉사기간 내내 그 이유가 무언지 찾으려 수없이 생각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하루 이틀 지나며 이번 해외봉사가 우리 39명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놓아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해외봉사 한번 다녀왔다는 작은 이력 한 줄과 수십 명의 동료 단원들이 남겼지만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 혹은 수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곳에 다녀왔었던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들이 나 자신과 현지 아이들과 마을사람들에게도 큰 자양분이 되어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힘이 될 것이며 모두에게 더 밝은 내일로 가는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못한 저와 함께 2주간 행복한 시간과 마음 갖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선창할게요. 아자봉 ! 파이팅!!! ●●

정상은

청산유수 달변가

혜진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으나, 책장을 뒤희어넘는 글쟁이가 되고 싶어 했으나,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했으나 단 '아 자 봉' 세 글자를 외치며 마무리하는 걸로~ 그의 매력을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했던 14일. 남자들을 장기와 이야기로 대동단결시켜준, 그가 있어 더 끈근했던 2주의 시간.



정설아

bangseoulia

교육조장으로서 언니, 오빠들을 엄하게 다스리던 막내답지 않은 패기. 가출한 골반 찾아 캄보디아에 온 K-pop 에이스 명품 뒤태. 평소엔 사랑사방한 미술팀 막내지만 마법의 안경을 쓰면 전교 1등으로 변신. 39명의 생일축하를 받은 럭키걸. 엉뚱하면서도 솔직한 매력으로 언니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귀염둥이 백설공주.

내 마음을 밝혀줄 희망의 불씨

2박3일 간의 사전교육을 마치고 떠난 내 생애 첫 해외봉사.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여 벌레들과 후덥지근한 날씨가 나를 반길 때까지도 내가 해외봉사를 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이화스랑에서 교육봉사, 의료봉사, 노력봉사 등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그래, **한국으로 돌아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을 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함께 봉사를 간 39명의 사람들과는 얼마나 대단한 인연이고 운명이기에 2주라는 긴 시간을 함께 지내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을 하니 매 순간이 정말 소중한 것. 또한 그랬기에 **한국에서 지나쳤을 법한 작은 것들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던 것도**, 땀으로 젖은 옷을 스코에 씻어 보내던 것도, 밤하늘의 별을 구경하며 우리네 인생을 이야기하던 것도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봉사를 통해 나를 위한 인생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가슴 속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피어났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39명의 봉사자들이 이번 봉사를 계기로 39개의 작은 불씨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 불씨들은 언젠가 큰 불이 되어 세상을 뜨겁게 달굴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우리와 마음을 나눈 캄보디아 사람들 마음속에도 **희망의 불씨**가 생겼으리라 생각한다. **13번의 꿈을 꾸는 것만 같은, 정말 한 여름의 꿈과 같은 시간이었다.**

열려라, 판도라의 상자

●● ‘저에게 있어 아자봉은,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2012년 여름, 나에게 배달된 캄보디아행 판도라의 상자.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고 13박 14일의 시간동안 여러 경험들로부터 다양한 감정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돌아온 나를 발견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더불어 씻을 물과 먹는 물 모두가 부족한 상황은 서로를 예민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꾼!’을 외쳐주던 마을사람들과 참 해맑았던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늘 고마워했고 반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에 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한국에서 조금 더 많이, 여유 있게 준비해 갈 걸, 후회하며 더 많이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이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환경들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려왔던 것이었다. 전기가 충분치 않은 환경에서 호불불 하나로 밤새도록 공부하던 홈스테이 집에서의 소녀. 외교관이 되기 위해 캄-한사전을 펼쳐 놓고 공부하던 소녀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앞으로 스스로가 나태해질 때마다 마음을 바로잡게 해줄 고마운 자극제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동안 39명의 단원들이 내 옆에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위로해주었다는 것 또한 잊을 수 없다. 잘 따라주던 동생들, "세은아 파이팅!"을 외쳐주던 오빠들. 상자의 가장 마지막에 숨어있던 것은 아자봉 2기, 39명과의 추억이 아닐까 싶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아꾼! ●●

정세은

엄마 삼살개

현지에서 청혼을 받을 만큼 미모의 소유자. 아자봉 2기 얼굴마담. 남녀단원들의 가교역할을 한 책임감 넘치는 그녀. 모든 단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하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며 이가페적인 사랑을 실현하는 엄마 삼살개. 2주 동안 너무나도 고생한 그녀. 떠나라, 다시 이화스랑으로...



내 가슴 속, 찬란한 캄보디아



정재영

탈하면 재영

항상 묵묵히 뒤에서 불평 없이
자기 할 일을 해내며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탈탈한 당신
보고싶다~!
탈이 많아 위생적이진 못했지만,
음식조 조정으로서 우리에게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해준 탈셰프.
우리에게 감성적인 노래를
선물해준 재영이에게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너의 탈만큼
사랑하는 거 알지?^^*



2012년 7월 11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캄보디아. 공항을 나서자마자 습한 기후와 낯선 외국인들은 내게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앞으로의 2주간의 생활이 조금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던 내가 어느새 한국에 돌아와서 지난 2주간의 추억을 일주일 쯤 만지작거리다. 당분간은 추억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벗어나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다.

첫 수업을 하기 위해 학교를 도착하자 우리를 반겨주는 것은 웃음을 한 가득 머금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아이들이었다. 실로폰을 가지고 '작은 별'을 연주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저절로 내 얼굴에도 미소가 번져갔다.

캄보디아에서 노력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름 아닌 '더위'였다. 작업 자체보다도 땀별 아래서 오래도록 서 있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동료단원들을 보며 힘낼 수 있었다. 우리가 간 시기가 마침 우기였기 때문에 오후에 비가 곧잘 쏟아지곤 했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 작업을 멈추고 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취하거나 함께 어울려 놀기도 했다. **이런 시간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

2012년 7월 23일 23시 40분에 인천행 비행기를 탔다. 13박 14일간의 아자봉 2기의 활동도 모두 끝났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다. 떠나기 전에는 그러게도 길게 느껴졌던 기간인데, 지나고 보니 언제 13박14일이 지났는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다.

낯선 캄보디아 땅에서 펼친 해외 봉사 활동. 너무나 인상 깊었고, 느끼고 배운 점도 많았다.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해외봉사활동을 아산나눔재단 덕분에 다녀올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고 멋진 행운이었다. **나에게 2012년 7월은 정말 뜨거웠던 여름이었다. 앞으로 나를 소개할 때 아자봉 2기였다는 사실을 빼다면 설명되지 않을 만큼 나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

알에서 깨어나다

홍진희

음애음애 홍태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 깊은 성격에 짓궂은
장난에도 웃는 얼굴로 다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

부러질 듯한 팔목으로 열심히
사포질을 하던 아름다운 그녀!
1초 황보라와 이나영을 닮은
미모의 소유자. 지고지순한
여성의 매력, 이제 좋은 남자만
만나면 되겠다!



교육봉사, 노력봉사, 공연, 의료보조
봉사로 나누어 활동을 하였는데, 교육봉사에서는 특정 단어(예를
들어 ‘쁘잔(笑)’, ‘러어나(잘했어요)’만 반복했던 것이 무척이나 아쉬
웠지만, 전반적인 수업분위기가 좋아서 뿌듯했다.

노력봉사는 계속 같은 조끼리 모이지 않고
새로운 팀으로 구성되었던 점이 좋았다. 특히 페인트칠, 벽화그리
기 등 평소 해보지 않았던 작업에 처음엔 난감했지만 아산나눔재
단 단원들끼리 단결된 모습으로 일을 진행했던 것이 수동적이지
않아 더 기분이 좋았다.

의료보조 봉사를 했던 날이 나에
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다. 전날에 이미
의료보조 봉사를 경험했던 단원의 도움으로 일
이 순조로웠던 것도 있었지만, 캄보디아 마을주
민들을 직접 대면하고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나에게 소아과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 더욱 뿌듯했던 것은 의료봉사팀 분
들께서 했던 말이었다. <아산나눔재단 단원>들이 없었다면 의료
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 한마디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을 통해서 한국에서 했던
봉사활동과 다른 점도 배울 수 있었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도 알게 되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러나! 아꾼!

“ 처음 합격통지를 받았을 때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했었다. 그러나 막상 2박3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현지에서 가서 할 봉사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연습을 해보니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두려움이 생겼었다. 그래도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성실히 준비했다. 특히 k-pop 공연준비는 출국 전에도 여러 번 모여서 연습하고 공항과 현지에서도 열심히 연습해서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다.

현지에 도착해서는 날씨와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본격적으로 첫 봉사는 교육봉사였다. 체육수업을 맡아서 하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었다. **노력봉사를 할 때에는 비록 눈앞의 성과가 미미하더라도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 다음으로 한 봉사는 의료봉사보조였는데 약국과 안내파트를 맡았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 별로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소통 문제를 걱정했었는데 비록 단어들의 나열이었지만 표정, 눈빛으로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서 놀랍고 뭉클했었다. 봉사를 마칠 때는 마음이 진짜 허전하고 섭섭했었다. 2주간 봉사를 하면서 얻었던 소중한 인연들과 기억을 평생 간직하고 싶다. 아자봉 2기! 러나! 아꾼! ”



황석희

황SUZI, 씨키씨키

새하얀 피부와 머리에 묶은
손수건은 청순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외모는
청순하나 알고 나면 청국장
같은 성격에 목소리 큰 폰수.
언니, 오빠들에게 건방진
애교와 발랄한 매력으로
아자봉에 최고 인기녀 등극.



●● 캄보디아에 다녀온 지 수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일어나면 소들이 지나다니는 이화스랑에 있는 것만 같다. 처음 이화스랑에 도착하고, 내리쬐는 햇볕에 당황하고 있을 때, 멀리서 웃고 있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았다. 마음이 녹아 내리는 것 같았다. 어찌나 눈망울이 예쁘던지, 지금도 그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다.

예쁜 눈망울에 매료되는 것도 잠시, 쉴 틈 없이 바로 교육봉사를 시작하고 노력봉사를 시작했다. 체육 수업 동안 아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에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우리가 준비해온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뿌듯해졌다. 캄보디아에 온지 이틀이 지나고 내 몸이 이상해짐을 느꼈다. 중학교 때 이후로 그렇게 아파 보긴 처음이었다. 가족생각에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고, 몸이 아프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몸이 회복이 되어서도 머릿속에는 집에 가고 싶단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남들은 가고 싶어 애를 쓰는 해외봉사를 그냥 이렇게 끝낼 건가. 하지만 이내 후회와 반성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 한동안 비관적인 생각만 했던 내 자신이 창피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노력봉사 페인트칠과 벽화, 의료봉사 보조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힘들다'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올 때면 또 스스로를 자책하고 다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반복 하다 보니 어느새 봉사가 끝났다. 아쉽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정말 더 잘 해낼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으로 봉사를 끝냈다.

난 내가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 해외봉사를 다녀와서 많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앞으로 진짜 긍정적이고 밝고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뭐든 열심히 할 자신감이 생겼다! 황혜진 파이팅! 아자봉 파이팅! ●●

반성일기

황혜진

카나리아, 앵그리버드

우리 셋이. 외모는 카나리아를 닮은. '오빠 너무해요~!'를 남발하던 그녀. 하지만 그런 투정 뒤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맡은 일을 하던 모습. 메딕으로 왔으나 환자가 되어버린 혜진공주.

간간할 것 같은 첫인상과는 달리 털털한 성격과 거침없는 발언으로 우리를 혜진홀릭으로 빠져들게 한 그녀.



Letter



인솔자 소개 및 에세이

여러분의 까칠한 그녀입니다

강혜진

3초 이윤지, 안젤리나 혜진

우리 39명은 기억한다.
면접장에서 차도녀의 포스를
퐁기고 계시던 장미 같은 그녀.
하지만 그녀는 이화스랑에서
코코팜으로 재탄생했다.
하얀 코코팜 혜진샘이 피아노를
칠 때, 쿨한 코코팜 혜진샘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말랑한 코코팜 혜진샘이 벽화를
그릴 때 그녀에게선 코코팜의
참 맛이 느껴졌다.
아자봉의 최강 동안, 우유빛깔을
담당하는 베이글녀. 코코팜의
과즙만큼이나 달콤한 그녀의
매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점.....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 지난 7월의 2주는 멈춰있는 듯 했지만, 그 동안 멈춰있던 삶의 많은 부분을 깨워
준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한 캄보디아의 14일은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많은 가르침과 깨우
침을 주었어요. 가끔 큰소리도 내고 잔소리도 많이 했지만, 현지상황에 맞게 자주 변경되어 가는 프로그램과 고
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소풍, 개똥, 벌레들과 친구하며, 없는 물 한 모금씩 나눠 마시며, 굶은 일 서로 미루지
않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신나게,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빛내주는 여러분이 얼마나 고
맷고 감사했는지. 스스로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깨닫고 느끼고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건 얼마나 즐겁고 멋
졌는지요...

낮설고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탈은 나지 않을까, 서로 싸우진 않을까 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잘 적응하고 서로 의지하고 믿어가며 우리들의 공간을 잘 다져주었던 여러분들!
비단 캄보디아에서의 14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 어느 곳에 있어도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과 우리의 공간을 잘 만들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떠나있었던 빠빠한 현실로 다시 돌아왔지만, 우리가 반했던 캄보디아 하
늘의 별빛만큼 우리는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한 방에 옹기종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우리는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빛이 나는 그대
들이 되어주었으면, 소중한 우리의 14일을 마음속 깊숙이 잘 간직해 주었으면, 전
국 방방곡곡 어디에서 만나도 반갑게 맞이해줄 내 친구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
니다.

강렬하게 뜨거웠던 2012년 7월, 캄보디아에서 건네준 수줍지만 따뜻한
미소를, 태양보다 뜨거웠던 여러분의 열정을, 우리가 흘린 아름다운 땀방
울을 꼭 기억할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아자봉 2기!



변화는 출발하기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덕산

이화스랑의 셰익스피어,
점선면의 미학

늘 전체회의 끝에 명언을 남겨
수많은 추종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덕산대리님.
묵묵히 술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단원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존경의 크기만큼 노력의 향기가
물씬 풍겼던 구수한 신선 주민,
덕산대리님. 무서운 모습과
짓궂은 장난을 오가며 아자봉을
맨붕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했던
몸무파탈 덕산대리님,
사...사.. 존경합니다! ♥



“ 낮선 땅 캄보디아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각자가 느낀 것이 모두가 다를 것이라
고 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 노력봉사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잊고 지냈던 것들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사 마시던 생수 한 병, 늦은 밤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었던 전기, 스위치만 누르면 깨끗하
게 옷을 빨아주던 세탁기, 평소에는 빠르다고 생각지도 않은 인터넷과 언제 어디서나 걸었던 전화 한 통부터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낮선 환경이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밝은 열
굴로 살아가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며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마을축제를 진행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존재
가 의미가 된다는 것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마을 축제에 참여한 이들에게 민속놀
이며, 페이스 페인팅이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하고 즐거워 한 그 분들의 표정은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
억됩니다. 바자회 할 때 학용품이며, 옷이며, 소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진정한 나눔의 기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더위에서 페인트칠이며, 벌목이며, 배수로 공사며, 족구장 공사며, 돌이켜 보니 작지만
많은 일들을 했네요. 우리들 중 누군가는 ‘이게 무슨 봉사활동이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스스로에게 물어 봤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레스토랑 청소
부에게 ‘나는 글로 우주의 일부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이런 우
주의 일부를 아름답게 담고 가꾸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캄보디아에
서 함께 한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39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제대한 이후로 짧은 기간 동
안 이렇게 많은 사람과 오랫동안 한 곳에서 함께 생활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 2주는 서로를 알아가
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껴
여야 할 시행착오이며 의사결정이며, 이번 봉사활동이 하나의 연습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축제 때 모두
가 한 마음이 되어 연습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그들을 이미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도 먼 훗날 만날 누군가를 이미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점으로 흩어져있던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하나의 선이 되었습니다. 이
제는 소중한 인연을 모아 하나의 면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면에 여러분들이 가진 붓과 물감으로
이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을 소중
히 간직하겠습니다. 서로를 도와가며 열심히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친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





꼭~ 꼭~

동료의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고단함, 피곤함을
모두 날려 보냅니다.
또 힘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대여!

고뇌하고 번뇌하되
아파하지는
말아라.

쓰러지고
넘어지되
절망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웃어라!









그리운 얼굴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이들...

하지만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이제 우리는
긴 여행을 마칩니다.

십사일간의
행복에서, 아쉬움에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가슴속에 담겠습니다.